

KIA 통산 타율 1위의 위엄...캡틴은 거꾸로 잡아도 3할이다



주장으로 팀 포스트시즌 이끌어야...현재 5위 버티기
작년부터 2루수 변신...유격수 이은 골든글러브 도전

개막과 함께 4월 3할3푼3리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5월은 2할9푼1리로 떨어졌으나 3할을 유지했다. 그러나 6월 2할4푼1리, 7월 2할5푼8리에 그쳤다. 시즌 타율도 2할7푼대까지 하락했다. 2017년 타격왕의 위엄, 3년 연속 3할 타율도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8월들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한 달 동안 3할7푼7리의 고타율을 기록중이다. 전반기를 2할7푼8리로 마감했으나 후반기에만 3할5푼7리의 급상승 타격을 했다. 8월 23일 고척키움전에서 3안타를 날려 3할2리에 올랐다. 다시 하락했으나 지난 주말 두산과의 2연전에서 연속 멀티안타를 작성하며 다시 3할 타율에 복귀했다.

김선빈은 타이거즈 통산 타율 1위 보유자이다. 8월30일까지 통산 3할3리를 기록 중이다.

역대 타이거즈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산 3할 타자이다. 최형우와 나성범도 통산 3할이 넘지만 각각 삼성과 NC에서 더 오래 뛰었기 때문에 순수 타이거즈 타율은 아니다. 원클럽맨으로 유의미한 기록이다.

김선빈은 앞으로 중요한 도전을 한다. 첫 번째는 주장으로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어야 한다.

KIA는 2018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이후 4년 연속 가을야구에 실패하고 있다. 승률 5할을 왔다갔다하며 5위를 버티고 있다. 4경기 차로 추격하는 롯데를 뿌리쳐야 한다. 선수들을 결집시키는 캡틴의 능력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도전장을 내민 2루수 골든글러브이다. 유격수로 2017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지금까지 2루수와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브를 동시 수상한 선수는 없었다. 김선빈은 작년년부터 2루수로 변신해 3할7리를 기록했으나 한화 정은원에 밀려 수상에 실패했다. 올해 재도전을 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10개 구단 가운데 2루수로 최상위권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경쟁자는 키움의 김혜성이다. 타율 3할7리, 도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혜성은 2021 골든글러브 유격수 수상자이다. 올해 2루수로 변신해 김선빈과 동시에 최초의 유격수-2루수 골든글러브에 도전하고 있다. 두 선수의 뒤를 롯데 안치홍과 한화 정은원이 추격하는 모양새이다.

김선빈은 33살의 나이에도 모범적인 프로선수의 길을 가고 있다. 처음으로 주장을 맡아 팀을 생각하는 마음과 책임감도 강해졌다. 3할 타율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김중국 감독은 "경기도 거의 빠지지 않고 완주하고 있다. 주장의 책임감 때문인 것 같다. 집중력도 좋고 체력적으로 좋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슬비기자

이번엔 6년 연속 150안타, 끝모를 이정후의 '도장깨기'

2020년 프로야구에서 150개 이상의 안타를 친 이는 18명이다. 지난해는 그 수가 13명으로 조금 줄었다. 2019년 1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50안타는 매년 15명 안팎의 선수들에게만 허락되는 자리다.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는 지난 5년 간 이 대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정후는 8월 3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쏘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전 5회말 2사 만루에 대타로 등장, 이민석의 150km짜리 빠른 공을 공략해 시즌 150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2017년 데뷔한 이정후의 프로 생활 중 한 시즌 150개 미만의 안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데뷔 첫 해 179안타로 화려한 등장을 알린 이정후는 이듬해 163개, 2019년 193개, 2020년 181개로 꾸준히 150안타 고지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123경기에서 167개의 안타를 날렸고, 올해는 116경기 만에 '150'이라는 수치에 도달했다.

KBO리그 40년사에서 6년 연속 한 시즌 150개 이상의 안타를 친 선수는 불과 4명 뿐이다. 박용택(전 LG 트윈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시즌 연속 기록을 달성했고, 최형우(KIA·2013~2018)와 손아섭(NC·2016~2021)이 이정후와 함께 6시즌으로 뒤를 잇고 있다.

뉴시스



여주시청 이광희·김성훈, 전국실업유도선수권 금·銅

-81kg 이광희 금·-90kg 김성훈 동

여주시청 유도팀 이광희(25)와 김성훈(28)이 "2022 동트"를 통해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유도회(회장 임종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강원도 동해에서 개최된 "2022 동트"를 통해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여주시청 이광희(-81kg 금)와 김성훈(-90kg 금)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광희(여주시청)는 남자부 ·81kg급 8강에서 이상준(양평군청)을 만나 어깨메치기로 절반승을 따내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

김영재(광주광역시체육회)와 팽팽한 접전 끝에 한팔 업어치기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이종승(인천광역시청)에 지도 3개를 따내며 금메달을 획득하며 ·81kg 최정상에 올랐다.

김성훈(여주시청)은 남자부 ·90kg급 8강에서 김유철(용인시청)에게 모로 돌리기 한판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준결승에서 송민기(용인시청)에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장원 여주시청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훈련에 매진해 앞으로 있을 대회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체육회본부

친정팀 성남FC 준폐 위기에 황의조 "존재해야 하는 팀"

매각설에 응원 메시지 보내 "자부심 늘 가지고 뛰는 팀"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0·울림피아코스)가 정치적 외풍으로 위기에 빠진 친정팀 프로 축구 K리그1 성남FC를 응원했다.

성남은 최근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구단 매각 가능성을 언급해 준폐 위기에 놓였다.

이번 시즌 성적 부진으로 강등 위기인 성남은 신 시장의 발언에 흔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남일 전 감독도 사퇴했다.

성남은 28라운드를 치른 현재 K리그1 최하위(승점 21·승6무17패)에 처져 있다. 친정팀을 향한 논란이 커지자 황의조가 응

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남FC라는 팀을 두고 이렇게 슬프고 무거운 말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적었다.

이어 "성남은 K리그에서 7번 우승한 팀으로 K리그 역사와 언제나 함께한 팀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도 항상 팬들과 함께 뛰는 팀이고, 성남이라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뛰는 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잊어 본 적이 없는 팀의 힘든 시기를 모두 함께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성남FC

는 언제나 성남 그리고 K리그, 한국 축구에 존재해야 하는 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 출신인 황의조는 성남 유소년팀인 풍생중, 풍생고를 거쳐 2013년 성남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그는 성남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2017년 해외 무대에 진출했다.

프랑스 리그1 보르도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황의조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로 이적한 뒤 울림피아코스(그리스)로 한 시즌 임대됐다.

뉴시스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창단... '창립 54주년' 11월20일 예정

감독 김성은 선임...안산 영입 예정

광주은행은 여자 실업 양궁단을 창단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창단일은 창립 54주년인 오는 11월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최미선·안산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김성은 감독을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감독 및 창단 실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고 양궁단 창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은행 여자 양궁 선수단은 김성은 감독을 필두로 광주여대 출신 선수 3명과 함께 총 4명으로 구성돼 합찬 발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 열린 '2020도쿄올림픽'에서 양궁 여자상 첫 3관왕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관왕,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2022 양궁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를 내년말 졸업과 동시에 영입할 예정이다. 안산 선수는 광주은행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여자 양궁단 창단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메카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우리 고장 출신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타지역에 유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8년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중이다.

서선욱기자

잔여 경기는 '27'...이대호에게 '+α' 는 주어질까

6위 롯데, 마지막까지 5강 싸움... '선수' 이대호 모습 더 보려면 가을야구 가야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대호(40)의 모습을 몇 경기에서 더 볼 수 있을까. 롯데의 잔여 시즌은 27경기지만, 롯데와 이대호는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

롯데는 시즌 막바지 치열한 5강 경쟁 중이다. 이달 초 8일까지 밀려나며 가을야구에 발간 불이 켜졌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며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좀처럼 5위 진입은 쉽지가 않다. 롯데는 8월30일까지 5위 KIA 타이거즈에 4.5게임 차로 뒤진 6위에 머물고 있다.

롯데의 5강 경쟁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건 이대호 때문이다.

롯데가 이대로 시즌을 마감한다면 '선수' 이대호에게 주어질 추가 시간도 사라진다.

롯데가 올해 117경기를 소화하면서 '은퇴 시즌'을 치르고 있는 이대호에게 남은 경기는 27경기다.

'선수' 이대호의 모습을 27경기 이상 보기 위해선 롯데의 가을야구가 필수다.

후배들과 가을야구를 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 하고픈 이대호는 누구보다 팀의 순위 싸

움에 진심이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그는 올해 타율 0.330, 144안타 17홈런 74타점으로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중이다. 타율 3위, 최다 안타 공동 4위의 기록이다.

이대호를 앞세운 롯데는 8월 승률(0.565)에서 KIA(0.429)를 제치며 마지막까지 추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대호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은퇴 투여 경기에서도 매년 뜨거운 방망이를 선보이며 여전한 경쟁력을 선보이는 중이다.

27경기 동안 45게임 차를 없애기가 벅찬 것은 사실이지만 뒤집기 못할 수준까진 아니다. 릴레이 작별 인사 속에서도 제 몫 이상을 하는 이대호와 롯데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한다.